

◎ 벤처산업협회 서승모 차기회장 선출

2월 말 총회에서 추인 후 회장직 수행



협회는 지난 12일 오전 구로동 협회 사무국에서 이사회를 개최, 차기회장으로 서승모 씨앤에스테크놀로지 대표를 선출했다. 서 대표는 2월 말 개최되는 총회에서 최종 추인을 받은 후 회장직을 수행한다. 협회는 그동안 차기회장 선출을 위해 후보자를 모색해왔다. 신청접수 결과 서승모 씨앤에스테크놀로지 대표와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가 출사표를 던졌다. 협회 이사 재적인원 88명 중 56명이 출석하여 진행된 경선에서 서 후보는 총 투표 48표 중 44표(유효투표율 91.6%)를 획득하여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서 대표는 “벤처기업의 경영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데 중책을 맡게 되어 중압감을 느낀다”며 “그동안 벤처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온 선배 벤처기업인의 지혜와 후배들의 도전정신을 잘 접목하여 제2 벤처시대가 공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959년 5월생인 서 대표는 경북대 전자공학과와 연세대 대학원(VLSI설계)을 졸업한 후 1984년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에서 반도체 설계 담당 팀장을 거쳤다. 1993년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안고 씨앤에스테크놀로지를 창업했다. 이후 씨앤에스테크놀로지를 멀티미디어 및 인터넷전화용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ASIC) 등 한국을 대표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로 성장시켰다. 서 대표는 최근 자동차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병합해 자동차용 반도체 국산화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2001년부터 한국IT중소벤처기업연합회 수석부회장을 맡아 한국 IT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그는 2005년 협회장직을 수행했다. 2008년 벤처업계 대통합을 위하여 벤처산업협회와 통합을 추진한 서대표는 공동회장직과 단독 회장직을 수행하며 제2의 벤처시대 개막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더불어 2006년부터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임기 2년)을 역임했고, 전자부품연구원, 정보통신진흥원 임원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한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2009년 벤처업계 신년하례회 개최



협회를 비롯한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로 구성된 벤처기업 유관단체 연합회는 지난 14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2009년 벤처업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연합회는 ‘신년 하례회’를 통해 ‘녹색성장! 벤처가 펼쳐가는 또 다른 세상’이란 슬로건을 발표하고, 이를 상징하는 레이저 쇼와 중창단의 희망찬 노래로 2009년 벤처업계의 도약과 경제위기의 슬기로운 극복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안윤정 한국여성경제

연합회 회장과 서승모 협회장, 배희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도용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한미숙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등 정부·유관기관, 경제단체장, 벤처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임채민 지경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건실한 벤처기업이 일시적인 자금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최대한의 지원을 한다”는 방침과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특히 강조했다. 중기청 홍석우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도 지난해부터 벤처업계가 앞장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해준 데 대해 감사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제도 새 회장단을 중심으로 위기극복에 선도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배희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힘든 한 해를 벤처정신과 기업이 정신으로 이겨내고 있는 벤처기업인들이 2009년은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신 성장 패러다임인 ‘녹색성장’을 실천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희망의 상징이 되자”는 메시지를 제시했다.

◎ 벤처산업협회, 윤리경영인증 벤처기업 발표

메모렛월드, 아이디스 등 7곳 윤리경영인증 벤처기업으로 탄생

인증기업은 향후 정부포상, 기업신용평가, 대기업 상생협력 우대 협의

협회는 1월 15일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진행한 '벤처기업윤리경영인증' 평가에서 최종적으로 윤리기업으로 인증받은 벤처기업 일곱 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주인공은 비엘아이(대표 서경아), 메모렛월드(대표 최백수), 영신불산(대표 조창섭), 고감도(대표 안향자), 플로우테크(대표 양재구), 아이디스(대표 김영달), 성주음향(대표 최윤길) 등 일곱 개 기업(접수 순). 이들은 지난 8일 개최된 벤처윤리위원회 최종심의에서 승인을 받아 '인증' 기업으로 탄생했다.

협회는 2008년 총 25곳의 벤처기업에 대한 윤리인증평가를 진행했다. 현장평가는 표준협회가 담당했으며, 평가 기준은 2010년 제정될 예정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화(ISO26000)'를 준거 기준으로 했다. 현장평가 결과 25곳 가운데 10곳이 700점(총점 1,000점) 이상을 받아 통과했다. 이후 윤리전문가로 구성된 벤처윤리위원회가 최종심의를 펼쳐 7곳의 벤처기업에 대한 인증을 승인했다.

벤처기업윤리경영인증을 위한 평가지표는 모두 10개 대항목(이해관계자 파악 및 참여,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와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도,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효율성, 종업원 관리,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및 안전, 환경, CEO의 윤리경영 의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평가지표에 의거 진행되는 '벤처기업윤리경영인증제'는 개별 기업의 윤리경영 정도를 파악하고, 보완해야 할 점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윤리경영실천 가이드라고 할 수 있다.

협회는 지난해 초 벤처윤리경영인증기업 9곳(비트컴퓨터, 우림인포텍, 안철수연구소, 파크시스템스, 픽셀플러스, 쏘리테크, 삼광정밀, 자율소프트, 이수유비케어)을 발표했고, 2008년 25개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이번에 7곳의 인증기업을 발표하면서 윤리적 기업경영이 앞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 필수요소임을 설파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윤리경영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 명단을 정부, 기업신용평가기관, 금융권, 대기업 상생협력팀 등에 통보하여 정부 포상을 받거나, 기업의 신용평가를 받을 때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서승모 협회장은 "앞으로도 윤리경영인증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벤처업계 전반의 윤리인식제고에 힘쓸 것"이라며 "인증받은 벤처기업은 한층 더 성숙한 기업으로 거듭나 우리 경제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지난 2002년 정부와 함께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을 구축한 이후 벤처기업의 윤리경영 실천을 독려해 왔다. 이를 위하여 벤처윤리강령 제정 및 공표, 윤리학교 운영, 윤리경영자가진단 보급, 투명경영실천포럼 개최, 벤처사회공헌상 운영 등의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